### 아는 부분이 나와서 도움 드리면 좋겠어요

- 어떤 게 배우고 싶은지

“대학교에서 전공은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라고, 의공학과 쪽인데 얄팍하게 C언어로 코딩을 배웠어요. 학교에서 배우는 코딩은 한정적이더라고요.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. 처음에는 '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' 많이 걱정했어요. 그런데 처음에 운영팀에서 조를 짜준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. 많이 도움받고 있고 밥도 근처에서 같이 먹고요.”

- 그동안 어려웠던 점 또는 에피소드

“10시 되면 클러스터에서 나가야 하잖아요. 마무리하려는 데 파일이 꼬여서 멘탈이 터진 상태였어요. 그 와중에 하던 클러스터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과제를 하려고 git에 급하게 코드를 올렸어요. 그런데 막상 집에서 원격접속해서 git을 클론해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과제를 git에 커밋해두고 푸쉬를 안 해두고 간 거예. 처음 사용해봐서 푸쉬를 해야한다는 걸 몰랐어요(웃음).”

“5기 피신 시작 예정일이 8월 16일이었어요. 방학 때 피신을 하고 끝나면 대학교 개강인 스케줄이었죠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피신 시작이 4주가 미뤄져서, 피신이 학기랑 딱 겹치게 됐어요. 아직 제가 1학년 2학기라 휴학을 하자니 불안한 마음이 컸고, 그렇다고 피신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. '둘 다 해보자' 싶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. 대학교는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최대한 피신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.”

- 피신하면서 포기한 게 있다면

“집은 경남이고 학교 기숙사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곳에서 통학하고 있어요.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나와요. 버스 기다리고 이동하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, 9시 40분쯤 클러스터에 도착해요.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(웃음).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앞당겨지고 자는 시간은 늦춰졌어요. 시간이 없어서 평소에 즐기던 게임은 아예 못하고 있는데 당분간만 고생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.”

- 기존에 다녔던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

“제일 큰 건 동료학습인 것 같아요. 여기에 메리트를 느껴서 42서울에 온 것도 있어요.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대학교에 등교해본 적이 없어요. 교수님 강의 듣고 과제 제출하고 시험 본 게 끝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서, 교류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”

- 앞으로 바라는 점

“이곳의 개발 환경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삼성만 써서 맥도 이번에 처음 써봐요. '대체 한영은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' 이런 사소한 것들도 물어보고, 쉘도 물어볼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은 좀 많이 물어보고 다녀서 민폐인가 싶은데, 빨리 제가 아는 부분이 나와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C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실력이 '와 잘한다' 이 정도는 아니지만 C언어가 쉘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익숙하니까요.”

- 4주 뒤 나에게 한마디

“사실 지금은 남들보다 진도도 느린 것 같고 불안한 마음도 커요. ‘나 혼자 이 과제 마무리 못했나’ 이런 생각이 들고, 학교랑 피신 두 마리 토끼 쫓다가 학교 공부도 놓치면 어떡하나 싶죠. 그래도 지금 배우는 게 많고 하니까 붙든 안 붙은 우선 한 달만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. 4주 뒤에는 웃으면서 '어쨌든 그래도 잘 버텼다'라는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”

### 잘라낸 내용

처음엔 42서울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요. 코딩에 관심이 있다니까 친구가 소개해줬어요.

게더타운으로 만든 온라인 클러스터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. 구경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끊길 때가 있어서 재접속해야 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해요. 오프라인보다는 집중이 덜 되기는 하죠.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마이크 켜서 말 걸기 어렵기도 하고요.